

“11살때부터 꾸던 꿈, 드디어 이뤄졌다”

한국인 첫 '쇼팽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조성진

플로네이즈 연주상도 획득
한국 음악 역사 새로 쓴 쾌거

27국 160명 3차 걸쳐 경연

내년 2월 한국 갈라 콘서트



2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성진(맨 왼쪽)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아니스트 조성진(21)의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은 한국 음악 역사의 쾌거다.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조씨는 우승과 함께 플로네이즈 연주상까지 거머쥐었다.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쇼팽콩쿠르는 피아노 거장의 산실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다.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이 모두 쇼팽 콩쿠르 출신이다.

경연은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16~30세의 젊은 연주자들이 쇼팽의 곡만으로 실력을 겨룬다. 올해는 예선에 참가한 27개국, 160명 가운데 20개국, 78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 가운데 조씨를 비롯해 3차에 걸친 경연을 통과한 8개국, 10명이 결선에서 경쟁했다.

이번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결선에 오른 조씨는 지난 18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가장 먼저 결선 연주를 마쳤다.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 역대 최고 성적은 임동민, 임동혁 형제의 공동 3위다. 앞서 2000년 김정원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본선에 올랐고 2010년 김다솔, 서형민이 본선 2차에 진출한 바 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전 프레데릭 쇼팽 협회와 한 인터뷰에서 조씨는 "쇼팽 콩쿠르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 11살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드디어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쇼팽의 작품은 "기

품있고, 극적이고, 시적이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라면서 결선에서 많이 긴장했지만, 이번 콩쿠르에 참가하게 돼 기뻐고, 또 즐겁다고 말했다.

그는 콩쿠르 준비를 위해 한동안 "쇼팽만 연주했다"며 "몇 년에 걸쳐 한 작곡가의 작품만 연주하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쇼팽을 연주하면서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쇼팽의 음악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피아니스트의 삶을 사랑한다"며 "피아니스트로 사는 데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진은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해 초등

학교 6학년 때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병행했다.

11세이던 2005년 금요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후 2008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콩쿠르 입상자들은 21~23일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갈라 콘서트를 한 뒤 내년 초까지 유럽과 아시아를 돌며 연주한다. 한국에서도 내년 2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갈라 콘서트가 국내 처음으로 열린다. /연합뉴스

“초 3때부터 가르쳐...과장 없는 자연스런 연주 강점”

조성진 키운 박숙련 순천대 교수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을 한국에서 가르친 스승은 두 명이다. 피아니스트 신수정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 회원)와 박숙련(사진) 순천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21일 조씨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 교수와 전화 인터뷰했다. 박 교수는 "쇼팽 콩쿠르는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꿈꾸는 무대"라며 "성진이의 우승은 한국 피아노 역사를 새로 쓴 셈"이라고 말했다.

"성진이를 만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를 통해서다.

그 때부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함께였다. 성진이는 과묵하고 애어른 같은 아이였다. 2년 동안 목소리를 거의 못들을 정도였다.(웃음)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뭉가 터트러지고, 껌질을 깨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후부터 한번도 슬럼프, 퇴보가 없는 아이였다."

박 교수는 조 씨의 연주에서는 진중한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성진이는 연주할 때 전혀 오버하지 않는다. 과한 부분이 없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연주한다. 무언가를 억지로 보여주려 하지 않고 음악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그의 연주엔 우아함과 고상함이 있다. 연주가 굉장히 깊이 있고 작곡가의 의도도 잘 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011년 조씨가 3위 입상한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야기를 전했다. "파이널 경연을 마치고 공연장 밖에서 성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 비평가가 다가왔다. 방금 한국인의 연주를 봤는데 등수와 상관없이 앞으로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 아직 어린 나이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밀 길레스(1985년 타계) 느낌이 난다고도 했다. 그때 성진이 나이가 겨우 17살이었다."

조씨는 박 교수의 슬하를 떠나 지난 2012년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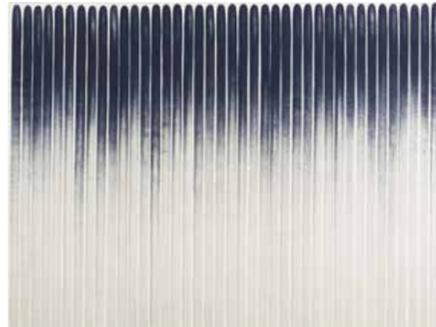
에서 미셀 베로프를 사사하고 있다.

"성진이는 연주자에 무게 중심을 두고 더 활동할 수도 있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했다. 성진이는 모든 면에서 신중하고 진지하다. 피아노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많이 읽는다. 여러 사람의 연주도 비교해보면서 다양하게 음악에 접근한다."

서울대와 미국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수학한 박씨는 미국 남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거쳐 10년전부터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고 경매가’ 이우환 화백 위작 유통 수사

인사동 화랑 압수수색...미술계 후폭풍 우려



이우환 작 '선으로부터'

한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 이우환 화백의 위작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미술계 일부에선 향후 미술품 시장을 우려하는가 하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화백의 위작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동 한 화랑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했고 화랑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화백은 몇 년 전부터 국내외 미술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평가받는 단색화 인기와도 맞물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경찰은 "이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위작들이 2012~2013

년 유통됐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화백의 위작 유통 가능성에 대해선 몇 차례 소문이 나돌았다. 이 화백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작품에 위작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외국 유명 경매사가 추상화와 단색화를 조명하는 전시를 열고 있고 국내에서도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도서가 출간되는 등 표면적으로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일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우환은 최근 10여 년간 경매사 미술품 낙찰총액(712억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등 미술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작가로 꼽힌다. /연합뉴스

‘별밭 가얏고’ 정기공연 25일 시민문화관

예술단 별밭 가얏고의 사랑의 연탄대리기 정기공연이 오는 25일 오후 5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별밭가얏고(단장 김혜진)는 해마다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을 마련하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열어왔다.

'가야금 선율에 춤사위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무대는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문명자 대표와 단원들이 함께 하는

가야금병창 '새타령'과 서영무용단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또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전통춤이 어우러진 '사랑무'가 이어지며 지순자씨가 연주하는 '안기옥 가야금산조'에 맞춰 김덕숙씨가 춤사위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예술단 별밭 가얏고와 22명의 무용수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토론회...내일 시의회 회의실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추진위원회(위원장 임혜철)는 2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추진에 즈음해'를 주제로 한 임혜철 위원장의 기초발언을 시작으로 유영대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명기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총감

독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김홍승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병열 문화선포니에타 단장, 한만섭 전 광주에총회장, 이용일 전 전남대학교수가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방청객과 함께하는 자유 토론 마련돼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오페라단 창단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악독한 노예상인에서 회심하여 불멸의 찬송 'Amazing Grace'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 인간구원의 감동드라마를 그린 영화 <프리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프리덤

FREEDOM

이카데미상상식 남우주연상 <셀마> <레리 맥과이어> 쿠바 구딩 주니어 | <쇼뱅크 탈출> 윌리엄 새들러 | 사론 릴 데이빗 라쉬 베르나르도 포처 | 피터 쿠센스 감독 [CBS시네마의 첫 번째 수입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의 감동실화!

11월 19일 CGV 독점 개봉

NAVER 프리덤